

지식채널 EBS



하노이, 천

년의 붓

물의 나라, 하안 아오자이의 예쁜 처녀들, 쌀국수, 전쟁, 사회주의 국가. 우리가 베트남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끄으라 하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그러나 베트남은 프랑스의 근대 미술과 러시아의 사회주의 미술의 영향을 자신들의 역사 속으로 녹여 내 전 세계에서 베트남만이 지닌 독특한 미술세계로 주목 받고 있는 나라다. 인도차이나 미술 대학 시절부터 개혁개방 이후에 이르기까지 베트남 화가들은 '가장 베트남적이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면서 독자적 예술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름다운 풍경' 뒤에 가려졌던 베트남 문화의 속살을 미술을 통해 재조명한 것이 바로 '아시아, 문화의 재발견' 베트남 편 <하노이, 천 년의 붓>이다. 글 정재은 사진 정재호



2

두 얼굴의 미술

베트남 수도 하노이 거리. 거리마다 세워진 대형 입간판에는 '인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착한 그림들로 가득하다. 입간판만 보면 베트남은 엉락없는 사회주의 국가다. 그러나 바로 그 거리 구석구석에 자리한 갤러리 안을 들여다보면 난해한 추상화에서부터 과감한 누드화에 이르기까지 한 때 서구 예술의 모든 시도를 담은 자유로운 그림들이 가득하다. 이런 그림은 1986년 베트남 공산당 6차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베트남식 개혁개방 경제정책인 '도이모이' 이후 대거 등장한 것들이다.

도이모이 이트를 아십니까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일찍이 베트남 미술의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타임>이나 <아시아뉴스> 등은 1990년대에 이미 약진하는 아시아의 3대 문화로 중국의 드라마, 인도의 분화, 베트남의 현대 미술을 꼽으며 그 중 베트남 현대 미술을 가리켜 '도이모이 아트'라는 독자적인 이름으로 불렀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사실 베트남은 미술사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나라다. 베트남 미술사는 대략 세 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1시기는 1952년 하노이에 세워진 프랑수식 미술교육기관인 'Ecole Des Beaux Arts d'indochina' 즉, 인도차이나 미술학교 개교에서 비롯된다. 이 시기를 통해 베트남에는 일찍이 인상주의를 비롯한 서구 유럽 미술 화풍이 전해진다. 제2시기는 이 시기 이후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러시아 사실주의 미술이 국가 공식미술로 힘을 발휘했던 때를 지칭하며 도이모이 이후에는 베트남식 시장경제주의 정책에 걸맞게 개인의 자유로운 표현이 확장되는 시기인 제3시기가 도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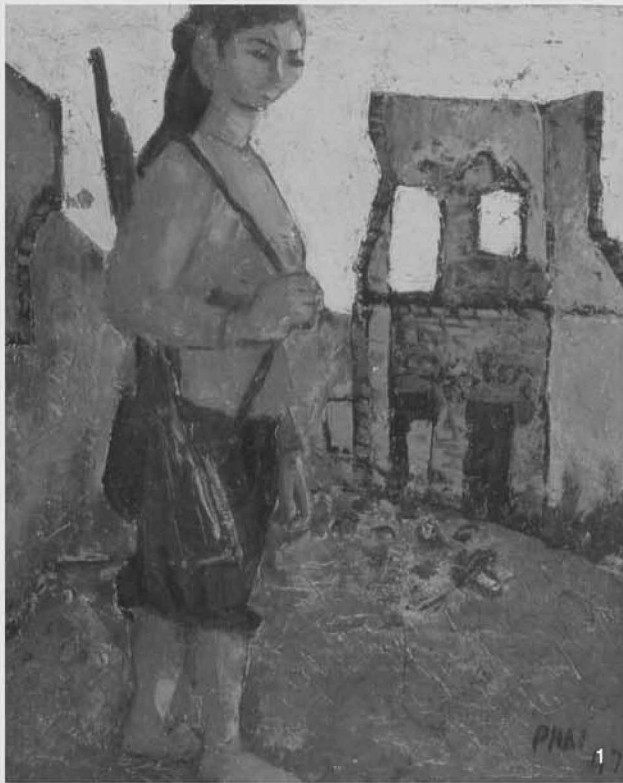
그런데, 궁금하다. 서슴편린 사회주의 미술 시대가 수십 년이 계속됐는데 도이모이 아트의 작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숨죽이고 있다가 그렇듯 홀연히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일까?



3



1 하노이 구 시가지 풍경을 재현하기 위해 방문한 옛 도시 호이안 2 비오는 저녁의 호이안 거리. 캄파왕국에서 구옌 원조 시대에 걸쳐 중국 인도 미술람 세계를 연결했던 오래된 국제 무역 항 3 도이모이 이트를 주도한 회가 당수언호이의 작업실 4 베트남 국민회가 브이성파이의 명성을 세계에 알린 대표작 <하노이 거리> 연작



“사회주의 미술이 주도했던 1960년대, 1970년대에도 홀로 개인의 독특한 시각을 담아 하노이 구시가지의 아름다움을 그려냈던 1세대(정확하게는 1.5세대) 화가 브이상파이의 그림을 보면서 저의 자유로운 영혼을 숨죽여 키울 수 있었지요.”

최초로 도이모이 아트를 주도한 다섯 명의 화가 중 한 명인 당수언호아의 말처럼 브이상파이는 당에서 권하는 프로파간다적 집단미술에 동참하지 않고 정치적 억압과 가난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과 영혼의 시각을 표현하며 평생 고독 속에 살다 간, 하노이의 고향으로 불리는 화가다. 브이상파이의 삶을 통해 베트남 근대 자유미술의 맥이 죽지 않고 변변히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덧살아는 법. 도이모이 아트는 하늘 아래 새로 태어난 무엇이 아니라 베트남 근대 100년의 미술 흐름을 모두 품은 토대 위에서 탄생한 미술인 것이다.

프랑스와 미국을 상대로 혹독한 전쟁을 치러야 했던 194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당의 정책을 인민의 눈높이에 맞춰 표현해야 했던 집단 창작의 시대를 지나 도이모이 이후 현대 서구 예술의 다양성을 추구하게 된 지금, 하노이와 호치민에는 상업 화랑이 급증하고 있으며 역량 있는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팔아 부를 누리기 시작하고 있다.

최근에는 도이모이 아트에 더욱 흥미로운 작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예술이라기보다는 수공예 성격에 가까웠던 중세 전통 나전칠기나 옷칠 동호판화 등의 전통 공예술이 현대 베트남 화가들의 캔버스 속으로 들어와 새로운 미술의 가능성을 열고 있는 것이다. 전통 옷칠 공예기업에서 비롯된 ‘썬마이 회화’는 서양 유화에서 실현할 수 없는 ‘층’을 보여 주며 오직 베트남에서만 실현되고 있는 회화다. ‘썬마이 회화’의 선도자라 할 베트남 최고의 인기 화가인 타임즈업은 썬마이 회화를 통해 베트남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다.



1 국민화가 부미상파이가 그린 '군인'. 그는 생각하는 군인을 자주 그렸다. 2 도이모이 미트 선두 주자인 레 티엣 10명의 최소주의 회화작품. 그는 꼭 필요한 것만 그리고 나머지는 여백으로 처리한다. 3 하노이 미술대학의 누드화 수업시간 4 유네스코에서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하롱베이 의 풍경. 2천여개의 거암괴석이 장관을 이룬다. 베트남 화가들은 이곳 몽의 전경을 종종 그림의 모티브로 삼는다. 5 도이모이 작후, 베트남적인 것을 서구 모던아트에 결합시키는 작업을 시도했던 5명의 혁신적인 예술가 '강 오브 파이브' (Gang of Five)의 대표화가 담수연호아.



이렇게 보자면 일명 도이모이 아트는 근대 100년뿐 아니라 하노이가 수도로 정해진 1010년 이후 베트남 천 년의 미학을 모두 끌어안아 담고 있는 '총체적 시간'의 미술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세계가 흠쳐 본 베트남 미술의 속살

세계 강대국인 프랑스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고 승리해 결국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낸 국가 베트남. 우리는 그들의 드높은 자부심을 이미 알고 있다. 또한 도이모이 이후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었으며 그 발전의 기저에는 근면함과 영립함이 있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베트남에 대한 지식은 그것이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베트남의 자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혼 혼하고 정겨운 하노이 시가지의 아름다움을 외로움과 탄압 속에서도 눈물겹게 재현해 낸 브리상파이의 그림, 썸마이 기법으로 서양 유희가 살려 내지 못하는 미묘한 색의 세계를 보여 주고 있는 타임즈영의 그림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진짜 베트남 이야기다.

우리는 하노이 거리에 가득한 오토바이 행렬을 보고 있다. 그것은 자유를 향한 베트남 인민들의 몸의 질주다. 그러나 그것뿐일까? 오늘날 하노이 호치민 거리에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상업 화랑과 그 안에 전시된 온갖 자유로운 현대 회화는 베트남이 몸의 질주를 넘어서 정신의 질주를 시도하고 있음을 암시해 준다.

세계는 이제 막 천 년 미학의 혼을 재현해 내고 있는 베트남 미술의 속살을 엿보기 시작했다. 도이모이 아트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베트남 현대 미술은 더 이상 도이모이 아트라는 이름으로 완결된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경지에 들어선 듯하다. 그들이 어디까지 질주해 갔는지 누가 알 수 있을까.